

‘차세대 이용대’ 허광희 빛났다

국내 최대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 3일째

8강부터 한 세트도 안 내주고 맹활약
대덕전자기고, 남고부 단체전 2관왕

대덕전자기계고교가 국내 배드민턴 남자고등부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덕전자기고는 23일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3일째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서울체고를 게임스코어 3-1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대덕전자기고는 4월 열린 2013전국보통중고배드민턴리그전에 이어 시즌 2관왕에 등극했다.

대덕전자기고의 우승을 이끈 선수는 허광희(18)였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태극마크를 단 허광희는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13수라바야컵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19세 이하) 남자단식 2위, 남자복식 1위에 오르며 향후 한국 남자배드민턴을 이끌 유망주로 평가 받았다.

이번 대회 단체전 8강전부터 단·복식에

모두 출전한 허광희는 준결승까지 6게임을 치르면서 패배는커녕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로 팀의 간판선수 역할을 확실히 했다. 서울체고와의 결승에서도 허광희는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1경기(단식)에 나서 장호상을 세트스코어 2-0(21-4 21-13)으로 일축한 허광희는 4경기(복식)에선 김정석과 짝을 이뤄 서울체고 최솔구-정태인과 자웅을 겨뤘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허광희-김정석은 세트스코어 2-0(21-11 24-22)으로 승리했다. 4경기 승리로 대덕전자기고는 서울체고를 3-1로 꺾고 명실상부하게 2013년 남고부 최강팀임을 확인했다. 허광희는 8강부터 결승까지 8경기를 소화하면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아 ‘차원이 다른’ 국가대표의 클래스를 과시했다.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선 성지여고가 접전 끝에 청송여고를 게임스코어 3-2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성지여고는 3경기까지 1-2로 뒤지면서 패색이 짙었으나 4경기(복식)에서 이선진-김혜림이 이민지-윤민아



‘차세대 이용대’로 꼽히는 허광희는 23일 전남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덕전자기고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사진 제공 | 대한배드민턴협회

를 세트스코어 2-0(21-12 21-16)으로 누른 데 이어 5경기(단식)에 나선 박근혜가 이승희를 세트스코어 2-0(23-21 21-13)으로 잡은 덕에 역전 우승을 일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경기종합결과
금요일(21일)

●남자 고등부 단체전 16강=대덕전자기고A 3-0 김진성(생명과학고), 송주영(고A 3-2 전대사대부고, 부산고 3-2 천안월봉고, 김천고 3-2 대구고, 전주생명과학고A 3-0 이천제일고, 밀양고 3-2 문수고, 서울체고 3-0 익천고, 진광고 3-2 군산고) ●여자 고등부 단체전 16강=화순고A 3-0 정덕여고, 전주성심여고 3-0 포천고, 청송여고A 3-0 충주여고, 범서고 3-0 화순고B, 치악고 3-1 공주여고, 성지여고 3-0 광주체고, 성일여고 3-0 정곡고, 제주여고 3-2 밀양여고

토요일(22일)

●남자 고등부 단식 예선전 최충철(진광고) 2-0 류승주(전남기과고), 김형욱(인천해안과학고) 2-0 황민호(천안월봉고), 박규호(전주생과고) 2-1 최민국(전남기과고), 구성민(광명북고) 2-1 권지민(밀양고), 최용은(인천해과고) 2-0 박수홍(웅산고), 김중만(군산고) 2-0 이경태(대덕전자기과고), 박성민(전남사대부고) 2-0 최성운(밀양고), 김정대(충주고) 2-0 김동현(부산고), 김태진(광명북고) 2-1 강형열(군산고), 서강민(김천생명과학고) 2-0 조연수(서울체고) ●남자 고등부 단체전 준결승전=대덕전자기과A 3-1 부산고, 서울체고 3-2 전주생명과학고A ●여자 고등부 단체전 준결승전=청송여고A 3-0 전주성심여고, 성지여고 3-1 제주여고

일요일(23일)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대덕전자기과A 3-1 서울체고
●여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성지여고 3-2 청송여고A

15·16·17·18번홀 연속버디! 10대 전인지 첫 메이저 우승

한국여자오픈 드라마같은 역전 우승 루키 전인지는 누구?

마지막 4개홀서 박소연에 1타차 역전
초등시절 수학영재, 부친 권유로 골프
전인지 “동료들 몰 뿌려서 우승 알았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또 한 명의 대형 스타가 탄생했다. 174cm의 훗칠한 키에 수줍은 미소가 돋보이는 전인지(19·하이트)가 그 주인공.

전인지는 23일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6422야드)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제27회 한국여자오픈’(총상금 6억원)에서 10대 돌풍을 일으키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는 1개로 막아내며 4언더파 68타를 쳤다.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경기를 끝내 박소연(21·12언더파 276타)을 1타 차로 제쳤다.

마지막 4개 홀 버디가 압권이었다. 14번홀까지 선두 박소연에 3타 차로 벌어져 역전 쉽지 않았다. 그러나 15번홀(파5) 버디를 시작으로 16, 17, 18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 드라마같은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전인지는 충남 서산 대진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작했다. 아버지 전종진(54) 씨의 권유로 골프를 배우게 됐다. 초등학교 시절 수학 공부로 좋아했다. 경시대회를 나가 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다 부친 전 씨가 공부보다 골프에 전념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골프선수의 길을 택했다. 본격적으로 골프를 배우기 위해 6학년 때 제주도 광양초등학교로 옮겼다. 이후 중학교 시절엔 전남 보성으로, 그리고 고교 시절엔 함

평에서 골프선수의 꿈을 키웠다. 전인지는 “수학은 공식이 있어 문제를 풀면 되지만 골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골프가 수학공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라며 웃었다.

골프선수도 두각을 보인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합평골프고 1학년 재학 중이던 2010년 처음 국가대표 삼비군으로 발탁됐고, 2011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프로 생활을 시작한 전인지는 작년 드림 투어 상금랭킹 2위를 차지하며 올해 정규투어 입성에 성공했다.

대뷔 첫해 활약은 기대 이상이다. 올해 출전한 9개 대회에서 모두 컷을 통과했고, 5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는 준우승에 이어 9번째 대회에서 우승을 신고했다.

상금 1억3000만원을 추가한 전인지는 상금랭킹 11위에서 4위(2억4963만원)로 쉼췌 뛰었다. 신인왕 경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번 우승으로 신인왕 포인트 886점을 획득, 김효주(983점)를 97점차로 추격했다.

첫 우승으로 눈물을 글썽인 전인지는 “9년과 14년홀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파로 막으면서 기회가 남았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홀 퍼팅을 끝낼 때까지 내가 우승했는지 몰랐는데 동료들이 몰을 뿌려 그제야 우승이란 걸 알았다”고 말했다.

신인이 한국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6번째다. 1996년 김미현을 시작으로 송보배(2004년), 이지영(2005년), 신지애(2006년), 정연주(2011년)이 루키 신인으로 한국여자오픈 정상에 차지했다.

송도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신인 전인지가 23일 한국여자골프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기아자동차 제27회 한국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프로대뷔 첫 해에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전인지가 우승을 확정지은 뒤 캐디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KLPGA

‘10대 돌풍 3인방’ 전인지·김효주·백규정, 3인3색 프로입문기

전인지, 상금랭킹 2위로 정규투어 입문
김효주 KLPGA투어 초청서 우승 프로행
백규정, 정회원 규정때문에 뒤늦게 프로

프로골퍼가 되는 길은 다양하다. 프로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가장 일반화된 방법이지만 그 밖의 길도 많다. 23일 한국여자오픈 챔피언조에서 경기를 펼친 새내기 골퍼 3명의 프로 입문기가 독특하다.

전인지(19·하이트)와 김효주(18·롯데), 백규정(18·CJ오쇼핑)은 아마추어 시절 번갈아 국가대표를 지낸 선후배다. 김효주는 2010년

부터 3년 간 국가대표로 활동했고, 2011년 전인지, 2012년 백규정이 국가대표가 돼 1년씩 한술밥을 먹었다.

가장 먼저 프로에 입문한 선수는 전인지(19·하이트)다. 2012년 6월 KLPGA 정회원이 됐고, 그해 2부 투어(드림투어) 상금랭킹 2위에 올라 올해부터 정규투어에서 뛰고 있다. 정통코스를 밟아왔다.

김효주(18·롯데)는 가장 힘든 길이자 빠른 길을 통과했다. 지난해 4월 KLPGA 투어 롯데마트 여자오픈에 아마추어 초청선수로 나와 우승하면서 프로 자격을 얻었다. 아마추어가 프로 대회에서 우승하면 정회원 자격과 함

께 2년 간 출전할 수 있는 시드를 준다. 아마추어로 프로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는 박세리, 김미현, 신지애 등이 있다.

김효주와 동갑내기인 백규정(18·CJ오쇼핑)은 조금은 복잡한 길을 걸었다.

그는 작년 10월 터키에서 열린 세계 아마추어 골프선수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KLPGA에서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또는 세계선수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프로(정회원)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백규정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KLPGA 규정에는 전년도 세계선수권 우승자에게 정회원 자격을 준다고 명시되어 있다.

백규정은 당해연도(2012년) 우승을 했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함께 우승했던 김민선(19·CJ오쇼핑) 역시 마찬가지다.

KLPGA는 올해부터 규정을 바꿨다. 세계선수권에서 우승(개인 및 단체전)한 해로부터 1년 이내에 프로가 되기를 희망할 경우 정회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백규정은 작년 11월 뒤늦게 프로(정회원)가 됐다. 그러나 이미 KLPGA 투어 시드선발전이 종료된 이후여서 정규투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백규정은 올해 드림투어 상금랭킹 3위 이내에 들거나 11월 예정된 시드선발전을 통과해야 내년 정규투어 무대를 밟을 수 있다. 아니면 김효주처럼 정규대회에서 우승하면 직행티켓을 받을 수 있다.

송도 | 주영로 기자



김연아(오른쪽)가 23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아이스쇼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팅 2013’에서 파트너와 호흡을 이룬 아름다운 오프닝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올림픽공원 | 박화용 기자 inphoto@donga.com 트위터@seven7sola

김연아 새 갈라...평화 메신저 변신

‘이미진’서 퍼포먼스 아닌 세계 평화 전해
“이젠 올림픽 모드...쇼트 프로그램 집중”

‘피겨여왕’ 김연아(23)가 ‘퍼포먼서’가 아닌 ‘메신저’로의 성장을 택했다. 이는 21~23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팅 2013’ 아이스쇼에서 공개한 새 갈라프로그램 ‘이미진(Imagine)’을 통해 극명히 드러났다.

김연아는 2013~2014시즌 새 갈라프로그램으로 ‘이미진’을 선보였다. 세계적 록그룹 비틀즈의 존 레논이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 반전 메시지를 담아 발표한 곡이다. 23일 공연에서도 김연아는 순백의 의상을 입고 등장에 아름다운 선율이 맞춰 우아한 동작으로 1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는 부분에선 ‘평화’를, ‘그러나 난 혼자자 아니다(but I’m not the only one)’라는 가사에 맞춰 감지를 들어 보이는 부분에선 곡이 지닌 의미를 극대화했다.

이는 김연아의 행보와도 맞물린다. 그녀는 1년 8개월의 휴식기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섰고, 이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꿈의 메신저로 활동을 이어갔다. 선수로 복귀한 뒤에는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19세기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무지컬화한 ‘레미제라블’을 들고 나왔다.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이들의 인간애와 혁명정신을 다룬 작품이다.

새 시즌 프로그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갈라쇼에서 ‘세계 평화’라는 가법지 않은 주제를 택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에서 선보일 작품이기에 의미가 더 깊다. 김연아는 아이스쇼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연을 잘 마쳤으니 앞으로 아직 안무를 짜지 않은 쇼트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른 시일 내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 프로그램은 분위기가 기존과 다를 것 같다. 부상을 조심해서 준비를 잘 하겠다”고 다짐했다.

올림픽공원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여자하키팀, 월드컵 본선 진출권 확보

여자하키팀이 세계하키폰 월드컵 3라운드에서 3위를 차지해 2014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한진수 감독(병택시청)이 이끄는 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3·4위전에서 3-3으로 비긴 뒤 페널티슛아웃(승부차기)에서 3-2로 승리했다. 대표팀은 3위까지만 주어지는 내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컵 본선 티켓을 확보했다.